



강릉시의회·몽골 자브항 도의회 국제우호 교류 협약 체결

농업·축산·문화·관광·교육 분야에서 교류 증진하기로

강릉시의회와 몽골 자브항 도의회가 지난 10월 28일 양 의회 간의 국제우호 교류 협약식을 열었다. 양 도시는 상호 협약을 통해 농업·축산·문화·관광·교육 분야에서 교류를 증진하고 상호 간의 우호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테 올람어르길 자브항 도의회 의장은 초대에 응하여 먼 곳까지 방문해 준 강릉시의회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하여 몽골과 자브항 도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영 강릉시의회 의장은 이번 우호협약이 양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관광·문화·인적교류에 지원



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 국가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와 몽골의 나담축제(몽골 최대의 민속축제)에 상호 초청하여 국제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우애를 돈독히 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제305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비 연수 및 심폐소생술 교육



강릉시의회는 지난 11월 1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305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교육을 열었다. 이번 정례회 대비 교육은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를 초청하여 의정 실무능력, 당초예산안 심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또한,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강릉소방서 응급처치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도 함께 받았다.

김기영 강릉시의회 의장은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에게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응급처치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확대하고 의원 역량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해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05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의결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희주)는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305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개최하기로 했다.

강릉시의회,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현장방문



강릉시의회는 지난 11월 16일,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강릉시 관광개발과 및 강릉관광개발공사와 합동으로 현장 방문하여 시설물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다부채길은 2020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피해 및 2021년 낙석피해 등으로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태풍피해 복구공사와 우회 노선 개설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10월 1일 전면개장되었다.

김기영 강릉시의회 의장은 관계부서에 “바다부채길은 2017년 개장 이후 연간 70만 명이 방문하는 강릉의 주요 관광지로서 2년 만에 다시 개장한 만큼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의회에서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강릉시의회는 지난 11월 22일 강릉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이웃사랑 김치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시의원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는 저소득층 50가구(10kg 상자 50개)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기영 강릉시의회 의장은 “사랑과 정성으로 담근 김장김치가 다가오는 겨울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305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

강릉시의회는 지난 11월 25일 제305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25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5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릉시의회 의원 연구 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김홍규 강릉시장의 2023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이어졌다.

김기영 의장은 “강릉시의회는 그동안 2026 ITS 세계총회 유치 성공과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설정 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야의 구분 없이 소통과 협치로 강릉시민만을 위해 달려온 만큼 앞으로도 민생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고통에 더해 전기와 유류를 비롯한 공공요금마저 동반 상승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민생경제회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갖고 합리적인 심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12월 7일부터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가 이어지며,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5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된다.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제12대 강릉시의회

강릉시의회,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 특목

4년간의 의정활동 본격 시동

제12대 강릉시의회는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네 번의 임시회와 한 번의 정례회를 거치면서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등 총 67건을 심사·의결했다. 또,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2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의정활동의 꽃, 견제·감시 역할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방의회에서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해 행정사무 전반을 살피고 강력한 견제 및 감시와 통제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린다. 그만큼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제30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강원 역사문화진흥원 설립 유치 추진 철저 ▲명예전망대 토지 문제 해결 등 관광지 관리 철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원 조성 필요 ▲국가 정원 지정을 위한 준비 철저 ▲수소산업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강조 ▲장기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대책 필요 ▲ITS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철저 ▲읍·면 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등 총 142건의 불합리한 행정행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활기찬 젊은 의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제12대 강릉시의회는 평균나이가 만 53세로 4년 전보다 3살이 젊어졌고, 전체 의원 중 약 60%가량이 초선이라는 점에서 강릉시의회는 젊은 의회, 새로운 의회, 활기찬 의회로 변모했다.

짧은 기간임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도 잊지 않았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올해 개관한 북부 수영장과 아레나 수영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이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챙겼고, 강릉술향수목원을 방문하여 관광객 방문 현황 등에 대해 살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SW 융합센터'를 방문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방향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살피고 지역에 맞는 특산물 발굴에도 관심을 아끼지 않았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필수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방문으로 시민의 곁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설 예정이다.



시민의 목소리 전달, 자유발언과 결의문

제12대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자유발언과 결의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더 나은 삶의 터전 강릉을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다.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대비 방안 마련 촉구 ▲내곡동 주민센터 신축건립의 필요성 ▲남부·강북권역의 비행 안전구역 규제 완화 촉구 등의 자유발언과 ▲주문진 지정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강원 FC 홈경기 순환 개최 및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철회 결의안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에 직·간접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38
39

강릉시의회,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 특목

의정 역량 강화 교육 박차

4년 동안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길잡이가 되어줄 교육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시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기법,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대해 직무교육을 하고, 청렴 교육을 통해 청렴한 의회 상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기도 했다. 1996년부터 26년째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의회와 합동 연수도 열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3년 만에 개최됐지만, 그 동안 묵혀뒀던 상호 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또한, 11월 25일부터 열린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당초예산 심사 교육을 시행하여 내년도 강릉시의회 1년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며, 각종 응급상황을 대비한 심폐소생술교육도 받았다.

강릉의 새로운 시대, '강원 특별자치도'

올해 7월, 제12대 강릉시의회가 출범하자마자 강원 특별자치도 준비를 해 나갔다.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대비'를 주제로 한 자유발언이 있었다. 강원도에서도 특별자치도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관계부처에서도 지자체에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강릉시는 이런 지원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는지 꾸짖었다.

▲강릉만의 비전과 방향성 정립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한 특례 발굴 ▲강릉의 실정에 맞는 규제개혁과 경제성장 등 구체적인 목표 설정 등이 시급하며, 행정적으로 관련 예산 수립과 부서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강릉시의회의 발 빠르고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집행부는 특별자치추진단과 특별자치과를 신설함으로써 강원 특별자치도 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또, 지난 10월, 강릉시의회는 강원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강원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강원 특별법 개정법안에 반영할 특례 반영 요구사항을 소개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했다. **G**